"허위사실 유포 책임 묻겠다"

정헌율 익산시장, 기자회견서 "골재채취허가 업체에 장학금 기탁 강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부금강요혐의에 대한 사실무근 및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묻겠다고 13일 오후 1시 30분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석산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골재채취허가를 대가로 업체에 장학금 기탁을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장학금 모금과 관련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강요도 없었다" 밝혔다.

정시장은 "소명기회 한번 없이 피의자로 둔갑한 현실,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며 "특히 지난 7월 6일 그간 제기된 유언비어에 대해 소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한순간에 불구속 피의자로 변해버려 있었고 이 일로 제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소연 했다.

정 시장은 "취임 후 지나온 시간은 시민을 향한 열정과 헌신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간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의 대가가 날카로운 비수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앞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또한 "추측과 의혹만으로 비리 정치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거짓의 대가는 엄중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인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시정의 발목을 잡고, 익산시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가를 분명 치르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 하는 정헌율 익산시장

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기부문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기부문화가 위축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나눔 문화와 기업의 사회 환원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동참분위기를 유도해야 할 때 오히려 선의에서 비롯된 기부행위가 부정한 거래로 의심받는 지금의 상황이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시장은 "하루 빨리 안정화시키고 청렴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온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시장은 "아직 사법적 판단은 남아있지만 결과를 떠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시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은 시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시정 운영을 위해 익산시 1,500여 공직자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먹방이와 친구들' 캐릭터 군산 홍보

코엑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7' 참가

군산 대표 캐릭터 '먹방이와 친구들'이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7'에 참가해 군산 홍보에 맹활약 하고 있다.

'콘텐츠의 비상(飛上)구를 함께 찾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캐릭터 전시회이자 국제적 사업 시장(글로벌 비즈니스 마켓) 행사이다.

'뽀로로', '라바' 등 국내 인기 캐릭터가 총출동하는 이번 행사에 지역 캐릭터로서는 이례적으로 참가해 참가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먹방이와 친구들'은 지난 3월 군산시와 MOU를 맺고, 군산시 행복·영업부장으로 임명받아 군산 홍보와 공공캐릭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북미 최대 캐릭터 행사인 라스베가스 라이센싱 엑스포 대회에 지역 캐릭터로 유일하게 참가해 군산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현재 군산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저작권을 제공, 공유하며 관광 상품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 대표 캐릭터 '먹방이와 친구들'을 제작한 군산문화협동조합 'G-로컬아이' 관계자는 "라스베가스 행사에 이은 이번 행사 참가로 '먹방이와 친구들' 캐릭터의 직관적이고 시안성이 강한 장점을 통해 군산을 대내외로 알리게 돼 매우 기쁘다" 라며 "그동안 지역 마스코트 개념에 머물렀던 캐릭터를 지역 홍보를 넘어 지역관광산업으로 확장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군산=장 현 기자

원대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MRC)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가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MRC) 사업'에 선정돼 향후 7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전라북도, 익산시로부터 총 9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2008년 9월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가 선도연구센터에 선정된 이후 올해 선도연구센터 재진입에 성공해 한의학 기초연구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세계적 수준의 보완대체의학 전문연구센터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장 이호섭 교수는 "원광대뿐만 아니라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과 협력해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메가바이오, 한풍제약 등 한방전문기업과도 협력을 통해 실용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개소 예정인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는 한의학적 이론인 심신불교(心腎不交)와 관련 있는 심신증후군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치방(治方)을 개발하고, 기초한의학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하림, 계열농가 소득향상 등 상생방안 협의

'상반기 농가협의회 정기회' 개최… 대닭 사육방향 · 사육 회전수 증가 방안 집중 논의

㈜하림은 계열농가 소득향상 등 상생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3일 '2017년 상반기 농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농가협의회는 하림 이문용 총괄사장과 이광택 농가협의회 회장 등 12개 협의회장단이 참석해 최근 농가 현안인 대닭 사육방향과 사육 회전수 증가를 통한 농가 평균 사육소득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현재 육계 평균체중 1.6kg을 2.0kg이상 대닭으로 사육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2.5kg 등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소득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현재 연간 6.1회전인 사육회전주기를 2026년까지 6.5회전으로 늘려 농가 평균 소득을 올해 1억9000만원에서 오는 2026년에는 47% 향상된 2억8000만원으로 증대키로 했다.

농가협의회는 또 AI로 인한 종계 살처분으로 전국 10% 이상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하절기 병아리 입추 보조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하림은 현재 전년 대비

㈜하림은 13일 '2017년 상반기 농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육농가 자녀 장학금으로 고교생 50명, 대학생 60명 등 110명에게 8500만원을 전달했다.

농가 입추에 어려움은 없지만 농가별로 입추준비 인력지원과 PLT(깔짚처리제) 지원 방안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하절기 비타민제 지원과 농가에서 출하할 때 마지막 출하일 기준 양계협회 전주시세를 정산서에 표기 방안 등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날 하림은 사육농가 자녀 장학금으로 고교생 50명에 각각 50만원, 대학생 60명에 각각 100만원 등 110명에게 8,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지금까지 5억2,000만원을 농가에 전달했다.

이문용 총괄사장은 "농가협의회의 핵심은 농가 평균 소득향상이 목적"이라며 "지난 2000년 농가당 연평균 사육소득이 5,000만원이었으나 2005년 7,400만원, 2010년 1억2,800만원, 지난해 1억8,1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6년엔 2억8,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반갑다!! 코딩~!' 교실 수강생 모집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17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군산시·부안군·서천군이 주관하며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운영하는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초등학생 저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반갑다!! 코딩~!' 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여름 특강에서는 과학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컴퓨팅적 호기심과 창조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코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학습수준에 따라 적절한 코딩프로그램을 활용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준별 분반수업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7월 17일부터 시작하며 군산은 초등저학년, 고학년 각각 15명 모집하고, 부안 및 서천은 초등 15명, 중등 15명 씩 각각 모집한다.

접수는 군산지역과 부안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ksscienceclass)에서, 서천군은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에서 선착순 가능하다.

유수창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장(군산대 화학과 교수)은 "미래사회는 생각하는 힘이 개인의 능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적절한 학습 방법이 코딩으로, 코딩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고 구현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국내 코딩교육은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정규과목으로 편성되면서 코딩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 카페 및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장현 기자